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러시아에 복음의 꽃을!

-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눅 24:48) -

제 5차 김치세미나 일정확정

러시아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교회 성장원리에 대한 신학적 배움의 기회와 영적 각성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국 복음화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제 5차 김치세미나 (KIMCHI Seminar)가 오는 25일에 시작된다.

이번에 초청된 러시아의 목회자들은 모스크바와 하바르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서울로 오게 되는데 대부분이 비자를 받는 등, 서울에 오기 위한 준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복음화를 위한 새벽기도회

복음의 씨가 뿌려져 불붙고 있는 러시아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초청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러시아에 바른 신앙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 교회가 지원하기로 했다. 김치세미나가 진행되는 5월 25일(수)부터 6월 3일(금)까지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새벽기도회는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는 특별기간으로 삼는다.

운영위원 모임 - 기도회 및 준비사항 세부검토

쉬임없이 기도하며 물질로 이 일을 돕는 성도들이 계속 늘고 있다. 별도의 예산없이 진행하는 이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헌금도 귀하지만 타교회 교인들까지도 이 일이 귀함을 동감하고 러시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며 헌신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제 5차 김치세미나의 운영위원들은 9일(월) 오후 7시에 교회에서 모여 기도회를 갖고 준비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경로잔치

- 초등부, 대학부, 청년부 연합으로 소망부 방문 -

소망부는 70세 이상된 성도들이 모여 천국시민의 삶을 배우며 실행해 가는 곳이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초등부·대학부·청년부 학생과 회원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소망부를 찾기로 했다.

일년 내내 어른들을 공경해야 하지만 어버이 주일인 오늘, 교회의 어른들께 특별한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 초등부 어린이들은 재롱잔치를, 젊은이들은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다. 평소에는 서로 만나기 어려운 네 개의 부서 구성원들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질 것이다.

권사회 주최 간증집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6(월), 17(화) 양일간, 안이숙 여사 초청

권사회에서는 모든 성도에게 새로운 헌신에의 결단과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16일(월), 17일(화) 양일간 오후 7시에 한국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며 저서 「죽으면 죽으리라」로 잘 알려진 안이숙 여사를 초청하여 간증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권사회는 지난 6일(금) 철야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교회 비품조사

- 비품대장 재정비, 비품 이동시에는 사무국에 연락해야 -

우리교회는 새 예배당 입당을 계기로 흩어진 기물들을 부서별로 파악하여 소정의 양식을 따라 비품대장을 새로이 기장하고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종이 한 장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물들이 그간 관리 부족으로 일부 폐품화된 현실을 자인하면서 이제는 낭비가 없도록 비품들을 잘 정리하기 위함이다. 이번엔 작성할 양식에 기재될 모든 비품들은 현 위치에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사무국에 보고하여 비품을 관리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 부서 및 방의 책임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비품의 보관과 관리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부서별 혹은 방별 비품 보고 및 책임은 해당 부서 당회원이 맡기로 했다.

당회원들, ‘절제의 생활’ 실천하기로

- 각 가정과 전 교회에 확산되어 신선한 활기 -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성경은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제시하고 있다(벧후 1:5). 우리 교회의 당회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보다 이름답고 흠이 없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절제 운동을 펴기로 했다. 세계 도처에서 긴급 식량 원조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치와 낭비 풍조가 만연한 것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실천 가능한 일들을 찾아 절약과 절제 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것이다.

베들레헴찬양대에서는 예산으로 책정된 성가 연습비를 이달부터 사용치 않기로 했고 청년부에서는 교회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이나 철제 컵 사용을 권장하고 「교계에 장」에서 나오는 컵의 설거지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장로들과 교역자들도 자원하여 도시락 싸오는 등, 각 부서마다 절제와 절약을 위한 소박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과부의 엽전 두 닢과 같이 성도들이 헌신의 마음으로 바친 헌금들이 한 톨도 낭비됨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는 절제운동은 교회 내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교제의 장

주차장

옥탑층에 성도들의 만남과 대화를 위해 아담한 교제의 장을 마련하고, 간단한 음료도 준비하였다.

동경주차장은 지난 주부터, 논현 주차장은 오늘부터 사용을 중지한다. 대남, 강남, 제일은행 주차장은 계속하여 사용하며 우리 교회의 지하와 앞 뜰 일부에도 주차할 수 있으나 새가족과 노약자를 위해 먼 곳에 있는 주차장부터 이용하는 양보의 마음을 갖자.

가정의 달 설교

자녀와 부모(II)



이 중 윤 (목사·당회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 ~ 4절)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듯,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알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엡5:21).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무익한 자신의 구원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복종을 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적용되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사랑 가운데 피차 복종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가 만연한 이 세대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무시되기 쉬운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며 그 이유를 세가지로 집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세가지 유형의 법이 있습니다. 자연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은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법이 모두 부모님께 순종해야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법, 곧 양심의 법을 따라 동서고금,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 여겨져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제 5계명은 하나님 섬기는 일과 인간관계에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은혜의 법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약속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번영과 장수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 중에서 인간 가운데 행할 계명의 첫번째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거역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 5계명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혹 존경할 수 없는 부모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말씀에 따라 부모의 희생적인 삶에 대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노력 또한 성도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3.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의무를 가집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제도이므로 가정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먼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일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실천하려는 사람만이 그 태도가 자녀로서의 삶에도 적용되어 가정 안에서도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천국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킬럼 ✦

모성

한 사회의 심장부는 가정이다. 그리고 한 가정의 심장부는 어머니의 모성이다. 그런고로 모성이 부패하고 병들면 가정과 사회도 따라서 부패하고 병들게 된다. 모성이 건전하고 성스러울 때 그 가정과 사회는 밝고 신선하고 깨끗할 것이다.

모성은 실로 강한 것이다. 거룩하고 고마운 것이며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그러기에 잘못되면 그 결과는 무서운 것이며, 그러나 잘만 되면 온 세계를 바른 길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인 것이다.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의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해 주자. 위로와 감사의 큰 박수를 우리의 어머니들께 보내 드리자.

아버이 주일에 드리는 글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아파,
감사해요!

오 윤 결
(대학부)

군에 입대하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벗어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늘 품고 다니는 아버지의 편지와 조그만 신앙성경이 항상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군생활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어쩌면 경험하지 못할 큰 시험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 장애도 없었던 제게 가족을 떠나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깊게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절제와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나태함과 교만을 깨닫게 하시며 진정으로 강한 힘이 진실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현재에 급급하고 미래를 볼 줄 모르던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이 새록 새록 생각나며 이제야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진정 맛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아버지께서 당부하신대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라신 아버지의 말씀따라 언제나 웃는 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첫 휴가를 갑니다. 그 때는 개구장이 철부지가 아닌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의 친구로, 나란히 앉아 더 많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나 느낀,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 이곳에서 더욱 소중히 느낀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 안에서의 교훈을 감사드립니다. ... 아버지, 아니 아파 사랑해요.

순례자캠페인 2

“도바로 피잘로 바제!” (러시아로 “환영합니다”라는 뜻)

제 5차 김치세미나가 오는 25일에 시작한다. 「순례자는 김치세미나의 진정한 목적을 잘 이루고 러시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위해 몇 주간에 걸쳐 다음의 글을 연재하려고 한다.

1. 김치세미나의 열매
2. 러시아 정황
3. 제5차 김치세미나 기도제목
4. 제 5차 김치세미나 현장스케치

오늘은 그 첫번째로 제 1차 김치세미나에 참석하고 귀국하여 자국복음화와 그리스도를 위한 새동유럽운동 전개에 힘쓰고 있는 파블로 체코 목사의 글과 NEEFC운동을 소개한다

1. 명백한 비전으로 영감을 받음. -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도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는 젊은 목사로서 나의 교회에서 항상 가르치고 설교하면서도 명백한 목표와 방향이 없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상고하는 시간조차 갖지 않았으며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 따위를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김치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논의를 하는 동안 “5년 후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목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자문하게 되었고 강의를 듣고 깨달은 방향으로 전 교회를 이끌기에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받은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음.

김치세미나가 진행된 기간은 우리나라(체코)의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대해 토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National Strategy)을 세우는 기간이기도 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계획하고 약속의 땅을 소유했는가를 볼 수 있었으며, 예수님도 전략이 있었고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음을 보았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대한 일이다.

작년에 나는 슬로바키아의 침례교 연합회장으로부터 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그를 방문하여 직접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실현케 할 힘은 내게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싶은 내 진심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뜻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워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것들을 함께 논의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

김치세미나에 참가하고 나서 받은 네가지 복들

파블로 체코 (목사 제1차 김치세미나 참가)

우지 않으면 자칫 분주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한국 김치세미나에서 배운 것이다.

3. 한국교회를 직접 보며 많은 것을 배웠음.

첫째,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설교하는 곳이다.

둘째, 한국교회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곳이다. 많은 기도운동과 기도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셋째, 한국교회는 주는 교회이다. 세계 도처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지원하고 선교를 위해 건물은 짓는다. 이것 역시 배울 점이다.

넷째, 한국교회는 목사, 전도사들과 선교사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킨다. 그들은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받는다.

4. 이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로 내 일생을 위한 개인적인 결심도 있었음.

나를 위한, 그리고 내 생애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동구라파를 위한 특별한 비전을 주셨으며 복을 주셨다.

1991년 이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새 동유럽(NEEFC / New Eastern Europe for Christ)운동」의 총무로 일해 왔다. 이 일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것과 세미나를 통해 새 비전에 대한 영감과 복을 받았음을 감사한다.

아울러 계속되는 서울교회의 기도와 지원에 대해 감사한 말을 전하고 싶다.

제1차 김치세미나의 열매 - 그리스도를 위한 새 동유럽(NEEFC) 운동

제 1차 김치세미나를 개최했던 1990년 당시 동구라파는 그때 막 어두움의 장막을 깨고 서서히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역사적인 시점에 있었다. 오랜 세월을 지하에서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며 신앙을 지키던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의 교회 지도자들이 김치세미나에 초청되어 교회성장을 위한 원리에 대해 연구하고 영적 갱신과 자국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고 돌아갔다.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이 받은 도전은 실로 컸다. 김치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돌아간 불가리아에는 신학 아카데미가 있었고, 박해를 받던 루마니아에서는 목회자세미나가 열렸다. 헝가리 교회가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개척교회운동

이 일어났다. 폴란드에서는 국경을 넘으며 예수를 전하는 「예수대행진」이 벌어졌고 체코의 칼비나에서는 동유럽 전역의 350명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위한 새 동유럽 대회(New Eastern Europe for Christ Conference)」가 열렸다. 이 대회의 결과로 NEEFC라 불리는 운동이 탄생되었다.

NEEFC운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들을 고무시켜 동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에 있다.

NEEFC운동 본부는 지금이 추수의 시기임을 깨닫고 500명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1992년 12월에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연합하여 신학선교원을 탄생시켰다. 이 선교원은 다른 국가들과 선교훈련기관이 없는 곳에 좋은 본이 되고 설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미 19명의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올해도 약 50

명의 학생이 신청서를 내었다.

NEEFC운동 본부의 가장 비중있는 비전은 모든 도시, 특히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동구라파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는 매우 어렵고도 큰 일이다. 그 일의 전초작업으로 조사를 해 보니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만 약 40개의 도시에 복음주의적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EEFC운동 본부는 올해 6월 1일 독일에서 교회개척협의회 개최, 6월 25일에 예수를 위한 행진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6월 10일부터 40일간 「창문을 통한 기도」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 일의 총무를 담당하는 체코의 파블로 체코 목사는 제 1차 김치세미나에 참석하여 비전을 받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그를 후원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 목회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서 러시아에 복음화의 꽃이 활짝 피도록 기도하자.



5월 1일 입당감사예배

- ① 입당 첫예배 (오전 9시)
- ② 간판 제막식 (오전 8시 30분)
- ③ 테이프 컷팅, 입당 (오전 8시 35분)
- ④ 떡잔치 (오후 4시 20분)
- ⑤ 감사찬양예배 (오후 5시)



제2회 한가족 • 한마음 축제

5월 5일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



5월 16일 목회자세미나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설교와 목회심리」 - 심상권 박사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소서
2. 제5차 「김치세미나(KIMCHI Seminar)」를 은혜 중에 준비하게 하소서
3.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목회자의 영적 각성과 교회의 갱신이 있게 하소서
4. 그리스도인답게 정직과 절제의 삶을 잘 실천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 회	오후 9시
새벽 기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